보도시점 (전매체) 10. 16.(월) 14:30

에스케이(SK)스토아, 민간 안방구매(홈쇼핑) 최초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 에스케이(SK)스토아 입점 소상공인들, 정산일 이전 조기 현금화 가능해져
- 연간 9,000억원의 최대 규모로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6일 에스케이(SK)스토아(대표 윤석암)에서 국내 민간 안방구매(홈쇼핑)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에스케이(SK)스토아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계기로 에스케이(SK)스토아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월 750억원, 연간 9,0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필요시 적시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도 유통 대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상생협력 의지만으로도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 지급 수단이다.

이번 에스케이(SK)스토아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그간 공공부문에서만 활용되던 유통망 상생결제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도 상생결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오기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공공부문에 이어서 민간부문에까지 유통망 상생결제가 확산되어 납품대금 회수와 유동성을 걱정하는 많은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실 상생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손후근 (044-204-7920)
		담당자	사무관	남현재 (044-204-79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SK스토아 유통망 상생결제 선포식 개요**

□ 추진 목적

○ **민간 홈쇼핑 최초, 최대 규모**로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하여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연간 9천억원 자금 **유동성**을 **지원**

※ **(유통망 상생결제 개념)** 유통 대기업의 여유자금을 담보로 입점 업체에 지급할 판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함으로써 입점 업체에게 자금유동성을 지원

< 유통망 상생결제 구조 >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3.10.16(월), 14시 40분, SK스토아 5층 B스튜디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5층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 SK스토아 윤석암 대표, 하나은행 성영수 부행장, T커머스협회 민재석 회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 등

○ **주요내용 :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

□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 고
14:40~14:43(3’)	■ 환영사(5층 B스튜디오)	SK스토아 대표
14:43~14:49(6’)	■ 축사	**차관, T커머스협회장**
14:49~14:54(5’)	■ SK스토아 상생협력 성과발표	영상시연
14:54~15:00(6’)	■ 선포식 세레모니	**차관**, 참석자 전원
15:00~15:10(10’)	■ 기념사진 촬영 후 A스튜디오로 이동	참석자 전원
15:10~15:20(10’)	■ 지자체 연계상품 홈쇼핑 방송 촬영장 방문 (5층 A스튜디오)	참석자 전원